

轉換期の 韓國社會와 文學

- 20~21세기 전환기의 성격과 과제

黃 滄 江

차례

I. 文學史와 轉換期
II. 作家와 轉換期

III. 現代의 轉換期的 課題

I. 文學史와 轉換期

‘轉換期’(transition period; period change)는 사회·경제·정치·문화·종교·사상·기타에서 과거와 다른 형태, 다른 성격으로 변모(convert)해 가는, 어떤 역사적 시기를 가리켜 말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환기’란 역사적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 탄생을 西歷의 紀元으로 삼은 것은 그 탄생을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준별할 계기적 사건으로 본 데서 왔다. 단군의 건국을 단기의 기원으로 삼은 것¹⁾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류 역사는 이렇듯 그때 그때 그 나름의 전환적 계기를 만나 새롭게 변화하여 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환기를 설정하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檀紀’에 관하여는 고려 공민왕 때 白文寶가 상소 가운데서 언급한 것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즉, 上疏言 …(中略)… 吾東方 自檀君至今 已三千六百年 乃爲周元之會 宜遵堯舜六經之道 不行功利禍福之說 如是則上天純祐 陰陽順時 國祚延長 …(後略) (『高麗史』 卷112, 列傳 25, 「白文寶」)

는 일은 역사적 시대 변별의 요건이 되면서 그 자체 곧 역사 해석을 의미하는 사실이 되었던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익히 써온 Reformation, Restoration, Hummanism, Renaissance, Elizabethan, Victorian...등은 어떤 특정한 시대의 전환기적 성격을 의식하고 지칭한 措語들이었다.²⁾

‘전환기의 한국사회와 문학’을 공동 주제로 설정한 주최측의 의도는, 필시 전환기의 사회적 상황이 문학에 직접, 간접의 영향을 끼치며, 그 결과 문학 또한 전환기적 변화를 가져왔으리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과 당대 문학과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정할 수 없는 주제가 아닌가 한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문학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치적, 사회적 여건과 전혀 무관하게 문학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듯하다.³⁾ 심한 경우 문학을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특히 물질적 구조 위에서 성립된 상층의식형태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태도에 대하여 René Wellek과 Austin Warren 등은 ‘문학은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혹은 지적 발전의 단순한 수동적인 반영이나 轉寫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문학사의 시대는 순수히 문학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⁴⁾ ‘문학사의 시대를 순수히 문학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the literary period should be established by purely literary criteria)고 한 이 주장은 문학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논리가 통하는 견해이기는 하나, 실제에 들어가 ‘순수히 문학적인 시대 설정’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명쾌한 해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순수히 문학적이라고 해서 정치, 사회와 결연된 마치 ‘眞空’과도 같은 ‘순수한 환경’에서 문학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의문이다. 문학 작품은 어느 의미에서든 사회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 문학의 종류나 속도나 유행의 변화는 사회의, 비슷한 모양의 변화와 분

2) cf. 황패강, 『Ⅲ. 國文學史의 時代區分』, 『한국고전문학의 이론과 과제』, 단국대출판부, 1997, p.108.

3) cf. *Ibid.*

4) René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regrine Books 1963, chap. 19, p. 264.

명히 관련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문학을 과연 사회나 정치와 전연 무관하게 '순수히 문학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논리로는 가능할 지 모르나, 실제로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한다.⁵⁾

또 문학의 비평적 연구분야에서는 문학을 그 자체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즉 그 작품의 작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또 작가가 속한 시대로부터도 독립된 것으로, 나아가 다른 작품으로부터도 독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도 없지 않다.⁶⁾ 작가와 시대, 다른 작품... 등의 역사적 사실과 절연된 문학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가령 역사적 체험이랄 수 없는, 우리 내면 깊숙히 <절대적 고통>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문학화되려면 <언어>라는 역사적 도구에 의하고, 그로써 남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작품은 역사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이 작가를 포함한 일체의 외부적 사실의 개입을 차단하고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본고의 논제-전환기의 한국사회와 문학-은 문학에 관한 역사적 연구로서, 사회관계로부터 문학의 質의 전환, 역사적 원인의 문학적 표현으로의 이행과정... 등 문학 생산의 多岐한 외적상황을 전제한 문학 논의임을 시사하고 있다. 역사에서 <전환기>를 획정하는 <전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계기적 사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 온 어떤 요인에 의하여 불가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필연성을 가지며, 비록 시초에는 국부적, 표면적, 일회적 사건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사회 내면의 구조적, 심층적, 본질적 변화로 연결되고, 전반적 질변화로 확대되어 간다. 그 결과와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무리 충격이 큰 대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발적, 일회적, 표면적 사건일 때에는 사회변화와 직결되지 않으며, 그 결과 또한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하겠다. 계기적 사건은 그 변화로 하여 후대에 길이 영향을 남긴다.

5) cf. 황재강, *op. cit.*, p.108f.

6) cf. 工藤好美, 「歴史と批評」, 『文學史の諸問題』, 南雲社, 1976, p. 16.

II. 作家와 轉換期

작가는 그의 작품을 통해 전환기를 앞질러 예고하고, 외치는 자다. 이른바 한 시대의 어둠을 깨치고, 새벽을 알리는 <善鳴者>가 바로 이와 같은 작가이다. 그는 역사적 전환의 필연성을 누구보다 일찍 간파하고, 새벽이 오는 것을 외쳐 한 사회를 깨우쳤다. 위대한 작가는 작품으로 한 나라와 한 사회, 세계와 인류 앞에 새 시대의 도래를 외쳐 알렸던 예언자요, 선각자물이었다. 이들은 예언자의 자리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시대적 전환기에 처하여는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 방향과 의미를 제시하고 호소하였다. <전환>이라 하여 언제나 긍정적인 <전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에는 위와 같은 前向的 전환기가 있는가 하면, 退行的 전환기도 있다. 작가는 퇴행적 전환기에 처하여는 어둠이 다가옴을 예고하고, 잠 깨어 있을 것을 외치고 호소하는 선명자여야 했다.⁷⁾ 작가는 그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기도 했다.⁹⁾

전환기(전향적) 작가는 작품을 통해 역사적 전환의 의미와 당위성, 필연성을 극명하게 그려내고, 그 현실화 과정과 방향을 냉정하게 검증하고, 이를 정감적 메시지에 담아 호소함으로써 사회 전환에 참여한다. 그는 물론 사회 변혁에 대한 높은 사상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그 '사상'은 결코 生硬한 思想 談論의 차원에 머무를 수는 없다. 작가는 작품으로 사상을 肉化하고, 형상화되되, 그 正體性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환기 문학에서 '사상의 正體性'은 궁극적으로 높은 인간적 감정과 미래에 대한 신뢰와 맺어져 있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전환기의 작가에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전환기의 현상을 거울에 비추듯 반영하는 데 그치는 형이요, 둘째는 순수문학을 추구한다고 전환

7) 善鳴者:人聲之精者爲言 文辭之於言 又其精者也 尤擇其善鳴者而假之鳴(韓退之「送孟東野序」,「古文真寶」後集「序類」)

8) 스토우 夫人(Mrs. Harriet Beecher Stowe: 1811-1896)의 *Uncle Tom's Cabin*(1852)은 미국의 노예해방운동에 불을 당긴 史上 空前絶後の 문학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9) 푸쉬킨(Пушкин А. С. 1799-1837)은 니콜라이 1세 治下 帝政러시아에서 그의 작품활동이 그 사회의 農奴制와 專制政治의 不調和로 인하여 皇帝와 貴族社會의 迫害 아래 처하였고, 급기야는 그를 미워하는 勢力의 陰謀로 決闘 끝에 죽었다. 그는 뒷걸음 치는 社會에서 屈치 않고 외치다 간 善鳴者였다.

기 현상에 무관심한 형, 셋째는 참여를 정면에 내걸고, 이념적, 실천적으로 사회 전환에 관여하는 형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어느 형이 과연 전환기 작가로서 선명자인가는 그 시대 나름의 전환의 성격과 아울러 그 작품을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독자와 연구자의 몫이다.

Ⅲ. 現代의 轉換期的 課題

앞으로 두 해가 지나면 20世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21世紀가 시작된다. 바야흐로 轉換期的의 여러 徵候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 世界大戰前에 겨우 싹튼 宇宙船研究와 超巨大望遠鏡에 의한 天體觀測이 大戰後에 엄청난 비약을 보였고, 宇宙船과 人工衛星의 발사로 꿈같은 사실을 探索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宇宙의 급속한 擴大를 두고, 알려지지 않았던 <宇宙外>의 發見過程으로 볼 것인지 아직 速斷하기는 이르다. 오늘날 우리는 한없는 巨視의 세계(macro-cosm)와 한없는 微視의 세계(micro-cosm)를 함께 對面하며, 새삼 우리가 사는 空間의 개념·의미를 改變해 가고 있으며, 또 시간(역사)도 급속히 그 길이와 의미를 改變해 가고 있다. 고고학·인류학·고생물학·지질학이 지구상의 生物, 특히 人類史의 長久함을 입증하게 된 것은 今世紀에 들어서도 최근의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百數十萬年에 이르는, 原人·舊人·新人으로 이어온 人類의 歷史를 발견함과 동시에, 環境破壞와 核戰爭의 威脅으로 終末期의 徵候를 목도하면서, 혹 우리들이 <最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危懼도 없지 않다. 이제까지 누려온 歷史의 悠遠性과는 전혀 異質인 滅亡으로의 傾斜速度를 體感하며, 歷史的 時間이 과연 物理的 時間과 같은 等質性을 갖는 것일까 懷疑하기도 한다. 우리 韓半島에 인간들이 살아온 시간의 總景에 비하여 有史時代의 微小에 새삼 눈뜨게 되면서, 時間의 '內部構造'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¹⁰⁾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한 世紀

10) cf. 益田勝實, 「神話의 想像力」, 『國文學』 6月號, 學燈社, 東京, 1975, p. 10f.

가 저무는 오늘에 와서 세계는 '20세기적 罔縛(?)-<이데올로기>로부터 점차 놓여나고 있다. 앞으로 올 21세기는 脫이데올로기의, 다른 세계로 갈 것같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일찍이 없었던 빠른 속도로 공간과 시간이 확대되고, 기성의 가치와 의미가 改變되어 가는, 그런 세계로 바뀌어 갈 것 같다. 더 이상 국가간, 민족간, 지역간의 白閉的인 장벽은 존재할 수 없게 전면 개방된, 이름 그대로의 Global 시대가 열려갈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통신수단의 브편화, 정보전달의 신속과 확장, 의사 전달 매체의 고도의 기능화... 등 여건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신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는 Global 시대의 지구가족, 곧 세계 시민으로 이 전환기에 참여할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세계의 중심을 중국으로, 스스로를 그 주변으로 자처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 이후 이를 청산한 것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어느듯이 歐美를, 근자에는 美國을 의식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다.¹¹⁾ 한동안 근대화 곧 서구화로 인식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들 문화권에 의하여 선도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늘날에 와서 그 한계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과학기술 만능'의 도그마는 인류 앞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유전자 操作에 의한 種의 改變과 複製라든가¹²⁾, 각종 環境(災殃¹³⁾은 局地的 事案이 아닌, 全世界의 현상이 되고 있다. 거대한 자연의

11) 15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이 1999년 1월 1일부터 11개국 회원국 간에 유로貨 시대를 열게 됨으로써 그들 나라 사이에 경제국경은 사라지게 되었다. 수년내에 세계구역 50%는 유로貨가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오늘날의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도 조만간 범세계질서 안에 융해될 날이 짐작되고 있다.

12) 97년 2월 영국 과학자들의 복제 羊 '돌리' 탄생이 발표된 뒤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복제 및 인간 복제의 윤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복제 원숭이 두 마리를 탄생시켰다. 뒤이어 여러 나라에서도 유전자 복제 연구가 성공했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전자 복제가 인간에게 적용될 경우를 염려하고 비난하는 여론이 일어났고, 각국 정부는 규제 조치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한 뒤, 그 연장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간복제에 대한 전세계의 반응은 부정적이거나, 과학자들 가운데 인간복제술이 필요한 의학적 상황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13) 주기적으로 닥치는 엘니뇨가 일으켰던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피해규모는 세계은행이 유례없는 엘니뇨 피해차관을 준비했던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힘이 가져오는 豫測不可能한 환경재앙은 기상이변을 수반한 地球溫暖化現象와 함께 인간의 존립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하고 있다. '手段의 絶對化'가 가져온 沒人間性도 20세기의 病理的 遺産이 아닐 수 없다. 지구온난화의 환경문제에서 보듯 이들은 세계 차원의 共同 對處를 요망한다. 一國, 一地域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好不好의 선택에 불구하고, 다가오는 21세기는 地球共同體意識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이다. 지역, 인종, 관습의 벽을 허물고, 지구가 즉 내지 세계시민으로 살지 않아서는 존립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選擇의 문제가 아니라, 必然이요, 當爲이다. 오늘날 지구에 팽배해 있는 네오-物神主義(neo-fetishism)의 沒人間性을 neo-humanism의 自然親和的 文化로 승화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로 가는 전환기 한국문학의 과제는 무엇이겠는가?

韓國文學을 一國의, 一民族의 文學으로서가 아닌, 世界人이 共有하는 文學¹⁴⁾으로 昇華시킬 일이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이제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그 자체 역사적 당위이기도 하다. 이는 21세기를 앞둔 전환기적 상황의 필연이기도 하고, 세계에 대한 우리 參與의 伸張과 관련이 있다. 國文學界도 세계화 추세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이른바 '國學者流'의 自閉的 연구풍토를 개방하고, 국문학의 세계 참여를 위한 位相定立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한다.¹⁵⁾ '지구가족이 공유하는 한국문학'이라는 생각과 아울러 서구나 구미의 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인식하던 개화기 이래의 인습을 떨쳐 버리고, 우리 시야 밖에 있던, 넓은 '세계'를 문학의 권역 안에 수용하고, 확충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21세기 우리 학계의, 또 하나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近者 한글의 世界文字化 논의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한 文化民族主義的 발상이 아니라는 데서 주목을 끈다.¹⁶⁾

14) 1970년 폴란드에서 출간된 Halina Ogarek-Czój의 '춘향전'(역주본)은 1974년 봄까지에 4천부 초판이 매진되었다. (cf. 황패강, 「1. 國文學 國際化的 現況과 課題」, 『한국 고전문학의 이론과 과제』, p. 56.

15) cf. *Ibid.*, p. 56f.

16) 미국 교포학자 박양춘에 의하여 주창되었는데, 이는 범세계적인 음성표기수단의

汎世界化로 가는 一大轉換期에 處하여, 이 시대의 작가와 문학연구자는 전환
기적 혼돈을 딛고 새벽을 앞질러 외치는 善鳴者의 召命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유를 목표로 삼고, 21세기 세계문자로서 한글의 기능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미국의 학계에서도 꽤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글 세계문자화의 이론과 실천에
관하여 그는 이미 국내에서 이에 관한 논저를 발간한 바 있다. (cf. 박양춘,
『한글을 세계문자로』, 知識産業社, 1996.)

Abstract

Korean Society and Literature in Transition Period

— The Character and Task of the Period 《20th-21st cent.》 —

Hwang Pae-Gang

The new century will begin before long. We are in the transition period that will request to arrange the problems unsettled during 20th century, and to offer the prospects for coming century as well. This essay treats of the issue which was stated above, but it would be limited to Korean literature and it's society.

1. Men of Letters in Korea usually have been foresighted, foretelled and warned the peoples of the dangerous changing in historical period. Their mission should be emphasized much more in this period change of our past century.

2. The political ideologies had been acted severely as magic fetters in our century, but now(the end of the cent.) we are no more bound by that. Korea have long history that took her position to circumference, and China to center of the World. Nowadays nobody could find such like self disdain to Korean. Nevertheless the state of matters are not so satisfactory, dare say.

3. Neo-fetishism which caused by mammonism, covering whole world, it resulted the collapse of humanity. The problems are not concerned only each one country, one race, but also whole world and global races. Every nations and every races should awake as global family member and World citizen, as well. Men on earth,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 World citizen.

4. The situation in New Coming Century will demand to break down every walls separated world citizen by region, race, custom, dare say. And then we would regain one world for various cultures by all sorts of races.

5. Korean literature should be not only for Korean but also for world citizen. There are many foreign literatures we haven't interested in.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m. Korean Literature and the Men of Letters should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in New Century, I hope.